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광림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탄생합니다!**
www.klmc.church



100개 미자립교회에 <교회학교 회복키트> 전달

광림청년부, 믿음의 다음세대 세워가는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

믿음의 다음세대를 세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2021년 광림교회 청년부 '국내 교육선교'가 8월 7일(토)부터 8월 21일(토)까지 비대면으로 전국 10개 지역 100개 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광림의 청년들은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와 전도의 여정은 멈출 수 없었다. 직접 찾아가는 대신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회학교 회복키트' 3종 세트를 제작해 100개 지역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교회학교 성장 돕는 패키지 프로그램

8월 1일(주일) 4부 예배 후 청년부는 본당 로비에서 '교회학교 회복키트' 전달식을 진행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중단된 중소도시 교회들의 회복을 돕고 제단이 다시 수축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와 염원을 담았다. 아이들을 교회로 초청하기 위한 심방 선물

2,000개, 찬양과 말씀이 선포될 때 중요한 도구로 쓰일 마이크 100개,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광림교회 교회학교 교육 자료가 담긴 USB 100개를 전달했다. 과자, 장난감, 손편지가 담긴 심방 선물로 아이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성능 좋은 마이크로 말씀을 전달하고, 분반공부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양육시켜 교회학교 성장을 돕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회복키트는 대전, 대구, 순창, 세종, 하남, 남양주, 이천, 천안, 단양, 공주 10개 거점을 통해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100여개 미자립 교회로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광림교회 청년부는 2008년 여름부터 매년 '국내교육선교'를 실시해 왔다. 전국 60여개 중소지방을 누비며 미자립교회를 찾아가 여름성경학교를 열어 주었다. 여름성경학교를 거쳐 청년으로 성장한 그들은 각 지역 교회의 리더가 되어 전도와 섬김의 사역을 감당

하고 있다. 올해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광림 청년들은 호렙산 기도회와 8월 첫째 주부터 3주간 진행되고 있는 쉼이나 워십 중보 기도회에서 각 지역 거점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왔다.



국내 선교 팀장을 맡고 있는 황예찬 성도는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교육 선교를 가야 할지 고민하고 새벽에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학교와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와 선교를 멈추지 말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내

선교를 준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광림교회 청년들은 호렙산 기간 동안 머그컵 판매, 청년부 회비, 성도들의 후원을 모아 미자립교회에 전달할 2,000개의 선물도 정성껏 마련했다.

부흥의 불씨 작은 교회들마다 살아나길

김주송 목사(청년부)는 "코로나 이후 국내 교회학교의 출석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르야 나오라(요11:43)'는 주님의 말씀처럼 광림교회 청년들의 섬김을 통해 지역의 작은 교회들마다 부흥의 불씨가 살아나고 믿음의 다음세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기도합니다"라고 당부했다.

유병권 기자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 204 095753
기독교대한감리회광림교회
문의 : 청년부 02-2015-1163

2 광림의 강단
질투의 감정을 극복하는 법

3 광림 스토리
강남복지재단 지원

4 특집
호렙산 기도회 간증

6 하나님을 만나다
교회학교 온라인예배

7 믿음의 현장
광림남교회,서교회,북교회

8 특집
장천의 아흔인생과 목회신학 이야기

질투의 감정을 극복하는 법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창세기 37장 18절)

본문은 형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파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을 향한 질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데, 창세기 37장 11절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질투는 상대방이 자신보다 많이 가졌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자신들은 별로 사랑하지 않고 유독 요셉을 편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를 못본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편애하는 모습이 거듭될수록 형들의 눈은 점차 이글거리기 시작했고, 끝내 질투의 감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질투는 분노를 불러왔고 형제들은 급기야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이 선한 의도로 나서서 동생을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고 이야기하자, 형제들은 채색옷을 벗겨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을 보고는 유다의 주도로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이후 요셉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질투와 분노가 요셉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도 질투의 감정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누군가를 향한 폭력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이를 살펴보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음을 기억합시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위대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열 두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열 두 지파를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들보다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는 동생 요셉을 향한 질투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남이 갖고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질투가 생겨납니다. 내게는 없다는 생각이 불안으로 이어지고, 얼마 없는 것마저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겨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질투의 감정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보살피시며, 나를 통해 선택하신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그 계획으로 인해 나는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와 다른 이웃, 상대방을 위해서도 선택하신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이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타인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시고 그에게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질투의 감정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37장 18~28절

18.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19. 서로 이르되 꿈 꾸는 자가 오노다 20.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21.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22.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23.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24.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25.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에 향품과 유함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지라 26.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27.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중하였더라 28. 그 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는 이집트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계획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질투의 시선을 돌리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선택과 계획이 다른 사람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에도, 우리는 남을 향한 질투가 아닌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복을 본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동생 요셉이 그 축복을 다 가로채는 듯 보이자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형들은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복은 생각하지 못했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속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현재의 상황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질투에 사로잡힙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면 할수록 그가

받는 사랑을 시기하며 집착했듯이, 질투는 지금 당장 내게 없는 것에만 집착하며 몰두하게 만듭니다. 미래의 비전은 보지 못하게 하는 질투는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만을 불러옵니다.

하나님께 미래를 맡긴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받은 복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시 84:11)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향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으며, 이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질투하기보다 나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복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미래를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며, 하늘의 풍성한 복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셋째,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질투 이면에는 소유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한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때, 불같은 질투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연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즉, 참된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처음에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께 요한에 관해서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요 21:21). 예수님은 요한의 미래에 관한 베드로의 물음에서 질투심 뒤에 숨어있는 소유욕을 끄집어 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요 21:22).

예수님의 말씀은 질투에 대한 완벽한 해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주님께만 향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두 눈을 예수님께만 고정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앞서든 내게 없는 것을 갖고 있던 그것에 큰 비중을 두게 되면, 질투 뒤에 있는 소유욕에 의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끝없는 소유욕은 결국 자신을 넘어뜨리는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내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며, 그 분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명하신 그 길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하나님이 부족한 야곱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시며, 놀라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질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도록 허락하지 마시라. 남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향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계획과 일들에 집중합시다. 이 때, 하나님은 축복된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삶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요”

<청장년부> 일과 영성 특강



청장년부(위원장: 신범식 권사)는 지난 7월 18일 ‘갈등은 양날의 칼이다’라는 주제로 줌을 활용해 특강을 진행했다. 청장년부는 <일과 영성-관계>에서 관계로 인해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동체에서 나누며, 특별히 관계사역 전문가인 장학순 목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장학순 목사는 “갈등이란 사람들 간에 생각과 입장이 다름으로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위기상황이다”라고 정의했다. 또 “삶에서 갈등의 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삶이 피폐해 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

고 말했다. 고린도전서 5장 17~19절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하며, 먼저 공동체와 이웃에게 화목한 사람이 되며, 삶에서 화해와 용서를 전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편지형 부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 갈등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상황을 침착하게 들여다보고 또 나를 들여다 봐야 한다. 이렇게 하면 업무적 갈등과 감정적 갈등을 분리

하는 여유를 한결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터 속에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당신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닐 때는 너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갈등 관계를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며, 마침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청장년부 <일과 영성>은 ‘일, 관계, 성공’을 주제로 매월 2주차, 4주차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사회봉사관 컨벤션홀B에서 진행하고 있다.

유심원 전도사(청장년부)

강남구 어르신 무더위 쉼터 생수 7,000여개 지원

광림교회,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이웃 사랑 실천



광림교회는 8월 4일(수) 강남복지재단에 ‘2021년 강남구 어르신 무더위 쉼터 생수 지원’ 행사를 갖고 쉼터 운영을 위한 생수 7,000여개를 지원했다.

강남구는 기후변화 적응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경우, 폭염 속에서 심혈관계 질환, 열사병 등의 질병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어 특별보호 필요가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

로 81개소 어르신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특별히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노인복지관 13개소 무더위 쉼터에 생수 지원코너를 마련하여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광림교회는 “코로나19 및 무더위 기승으로 더욱 힘든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나

마 힘이 되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강남복지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후원자 연계로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포토 뉴스



CTS아메리카 17주년기념 감사예배
7월 28일 김정석 담임목사는 CTS아메리카 개국17주년기념 감사예배에 참석했다.



여선교회총연합회 온라인 월례회
여선교회는 8월 1일, 3부 예배 후 온라인 월례회를 가졌다.



호렘산 기도회 CTS 방영
7월 27일(화) ~ 9월 11일(토) 매주 화~토 새벽1시 호렘산기도회가 CTS에서 방송되고 있다.



교역자 이동
2021년 하반기 교역자 파송이 있었다. (광림교회 홈페이지 참조)

담임목사 동정



- 7/27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연회 장정개정대담회
- 7/28 CTS 아메리카 17주년기념 및 공중파송출 감사예배
- 8/1 청년부 교육선교 교회학교 회복키트전달식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제33회 호렙산 기도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신 하나님

매년 남편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복에 소망을 담아 호렙산에 올랐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매년 부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는 어느 해보다 특별하고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남편 정막두 성도 개인택시 취득과 예배의 회복, 기드온 선교위원회 봉사회복 등 간절한 기도제목을 가지고 호렙산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지금도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호렙산 기도회 중에 남편의 개인택시 허가증이 나오고 운행할 차도 금방 구입할 수 있

었습니다. 남편은 첫 운행하기 전에 기도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수요치유신학 예배도 드리고 선교구 목사님, 전도사님께 기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 후 남편은 "영업 첫날 첫 수입금을 하나님께 드리자"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 '사업장을 개업하면 첫 수입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 그 약속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6월 19일) 남편이 처음으로

호렙산에 올랐습니다. 두 아들을 포함한 온 가족이 호렙산에 오른 첫 번째 날입니다. 남편은 주여, 주여, 주여 하는 순간 가슴에 뭉클함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남편의 신앙은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예배의 회복도, 기드온선교위원회 봉사도 하나님께서 다시 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이 살아가는 작은 일상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33교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혜경 집사(33교구)



'셔틀버스가 없으면 택시 타고라도 가야지'

이번 호렙산 기도회는 셔틀버스 운영을 안한다고 미안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전도사님 목소리를 뒤로하고 내 마음속에는 '가야지'라는 울림과 함께 오히려 새 힘이 솟았다. 이전에 수정약국 앞에서 호렙산 기도회 셔틀버스를 기다릴 때 13번 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찾아보니 운행 정보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야지. 셔틀버스가 없으면 택시를 타고라도 가야지'하며 다짐을 했다. 5월 31일 새벽 2시 50분, 장충체육관 앞에서 버스가 올 때 까지 기다렸다. 마주한 풍경에는 일터로 가는 사람들, 일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보인다.

'모두 예수 믿고 복 받고 살게 해 주세요. 아멘'이라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다. 새벽 3시 12분, 반가운 심야버스가 나타났다. 버티 고개 넘어 남산을 뒤로 하고 한남대교로 들어선다. 십자가, 한남대교 북단 해대상 옆에 들어서면 강 건너 현대고등학교 위로 우뚝 솟은 광림교회 큰 십자가가 반갑다. '누가 광림 식구 아니랄까봐...' 눈은 십자가를 따라가고 한강 건너며 늘 하는 기도 가 나온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백성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한강의 물같이 흘러 이 나라를 살리며,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의 한 방울 보혈이 강

같이 흘러 진리 안에 자유하며 대한민국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날 지구 식구들과 함께 셔틀버스를 타고 호렙산에 오르며 나눈 이야기들이 그림다.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던 그때 그 시절, 길도 닦이지 않은 진흥길에 택시를 타고 호렙산으로 향하시던 이야기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손주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다시 도전이 되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더 기도한다.
정성희 성도(2교구)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세월이 정말 빨라서 어느새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고 보니 그동안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번 호렙산 기도회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은퇴하고 나니 수입이 많이 줄어 남들처럼 투자를 한번 해보고자 부동산을 샀다 팔며 조금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한번 재미가 들리니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점점 시들해지기 시작하자 별기는 고사하고 본전도 까먹을 판이 되었습니다. 새벽기도를 시작하며 제 나름대로 정성을 모아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도 듣는다고 하는 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믿음이 적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매매의

꿈은 접어야 했고, 이젠 임대나 나가기를 기도해야 했습니다. 나 혼자만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우리 교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하며 기도하기를 어언 일 년이 지났습니다.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 동안 응답받기를 소망하며 다시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는 기도하고 낮이면 상가 인근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임대를 부탁했습니다. 호렙산 기도회 4주차 되는 수요일(6월 23일) 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대가 나갈 것 같다고 말하며 월요일쯤 계약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여 주일에는 감사헌금도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갑자기 연기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고 감사헌금까지 한 저로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어서 원망과 절망감마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영 응답지 않으시는가? 또 나라는 존재를 모르고 계시나? 나의 기도는 일고의 가치도 없을 만큼 나는 큰 죄인인가? 등 등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도회에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럼 다음 기회엔 들어주시려나?'하는 생각에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회 이틀을 남기고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것도 더 나은 조건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저는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하신 말씀이 참말입니다. 여러분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황희순 권사(4교구)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 7:38)

호렙산에 오르기만 하면...

나에게는 매년 호렙산 기도회 루틴이 있다. 40일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 호렙산에 오르기 전 기력보충을 위해 보양식을 먹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다. 호렙산에 오르기만 하면, 하늘 문이 열리듯 첫 주부터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다. 호렙산 3일차에는 남편 사업장의 막혔던 문

제를 해결해 주시고, 5일차에는 고혈압으로 부작용이 걱정된다며 코로나 백신접종을 안 하시겠다는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드렸더니, 갑자기 먼저 백신 접종을 하시겠다고 해서 건강하게 접종을 잘 마쳤다. 나의 기도를 세밀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정말 깜짝깜짝 놀라며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기도마저도 감사를 드린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이 있음을 믿기에,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묵묵히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기다린다. 특히, 이번 호렙산 기도회는 아직도 남아 있는 나 중심적인 사고와 잘못된 생각, 태도들을 조금씩 변화시키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듬뿍듬뿍 부어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

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언행에 있어 더 조심하게 되고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내 모습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것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제 알게 되었다. **박수정 권사(25교구)**

언제나 주님을 믿는 한결 같은 믿음으로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권사님과 장로님이신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부모님께서 항상 주일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셔서, 미국 대학을 다니는 중에도 학교 안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예배와 수요일 저녁예배에 항상 참석하며 주님 안에서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호렙산 새벽 기도회는 응답의 통로입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로스쿨을 지원하며 모든 것이 처음이라 스스로 알아보며 하나씩 준비했지만, 저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모님의 권유로 호렙산 기도회를 시작했

습니다. 호렙산에 오르는 것이 지치고 힘들지만, 저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응답을 듣기로 결심하며 저를 내려놓았습니다. 호렙산 기도회를 완주하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저에게 합격의 결과를 주셨고, 저에게 꼭 맞는 로스쿨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호렙산 기도회는 우리를 주님께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얻은 응답은 나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내 삶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 생각, 고집, 그리고 내 것을 온전히 버릴 때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호렙산 기도회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미국 로스쿨을 졸업하고, 세상적인 부와 명예의 갈림길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 해외 사업을 시작하라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며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많은 세상적인 어려움에 시험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성실히 마무리했을 때, 주님께서 주님만의 방법을 알려주셨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에게 통찰력을 더해 주셔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현재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법인회사 대표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해외 선교 사업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더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과 시간으로 꼭 응답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호렙산 기도회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회복시킵니다. 언제나 내 생각과 경험에 의지하여 결정하는 나의 약하고 잘못된 면을 알게 하시고, 세상적인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주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호렙산에 오르며 다시 한 번 주님의 응답을 듣는 귀한 축복의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권재범 집사(22교구)**

세상 것을 구했는데 더불어 하늘의 것을 주신 주님

광림남교회 입구에는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동상이 있다. 새벽에 교회에 들어서면서 맘속으로 항상 '예수님, 저 왔어요. 사랑해요'로 시작하는 호렙산의 여정이다. 이번 기도회에서 나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중요한 5가지 정도의 기도제목과 매일매일 새로운 기도제목을 챙겨가서 기도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 때마다 작은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하듯 미주알고주알 온갖 하소연과 감사한 일, 기쁜 일, 슬픈 일을 죄

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더 놀라운 것은 그 시간이 너무 좋고 기쁘고 편안함이 넘쳐서 처음 생겼던 기도제목이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나이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때때로 위롭고 괴롭고 눈물 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다 들어주시고 절대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광림교회에 와서 31번째 호렙산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항상 나는 세상의 것을 먼저 구했다. 올해에는 마음가짐이 더욱 특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준비하였다. 특히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여름철 비수기에 형편이 어려울까 봐 미리 40개의 감사헌금봉투를 마련하고 호렙산 기도회를 기다렸다. 무사히 완주만 하자 하는 간절함도 있었다. 그런데 주님은 내게 너무 큰 선물을 주셨다. 그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다. 주님 안에서 느끼는 그 기쁨은 바로 하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은 모든 세상의 근심도 염려도 두려움도 다 이겨내는 힘이 있다. 은혜다. 나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다. 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그 호렙산 기도회가 좋고 앞에서 5번째 줄 내 기도의 자리가 너무 좋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를 기다리시는데 내가 어찌 즐겁지 않을까. 세상의 것을 구한 내게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안겨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광림남교회 성도**

세세한 기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세가 나가야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사실 세가 나가지 않게 된지 1년이 넘은지라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월 달에 대심방을 받으면서 기도로 구하라는 권면을 받았고, 처음 그러한 생각을 마음에 두게 되었습니다. 마침 대심방이 끝날 때쯤, 가게를 보러 오신다는 분이 있었지만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고 시간은 계속 흘러,

이번 33회 호렙산 기도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를 위해 전도사님의 권면 가운데 호렙산 기도카드를 작성하고 준비하면서 갑자기 1월 달에 있던 일이 생각나면서 '내가 왜 감사로 받지 못했을까?'하는 생각이 들며 회개가 되었고, 믿음으로 기도제목을 써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민망함으로 기도제

목을 드렸지만, 웬지 후련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호렙산 기도회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회개 기도와 아멘으로 주시는 말씀을 받으며 이번 호렙산은 나를 위한 천국 잔치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갑자기 이날부터 빗발치듯 문의전화 오기 시작하며 오시는 분마다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가계약에 이어 7일째 계약이 되었습니다. 감사와 기도로 구하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경험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세세한 기도에도 응답하시며 만나주심을 다시 한 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정인숙 권사 (20교구)**

교회학교,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에 집중하도록 부모님도 함께 참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이후, 광림교회 교회학교는 각 부서별로 실시간 온라인예배로 아이들의 온전한 주일예배를 위해 힘쓰고 있다. 유아부부터 소년부, 어린이영어예배와 어와나에 이르기까지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각 부서 전도사와 교사들의 준비로 이전과 동일한 예배를 정규 예배 시간에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다.

유아부와 유치3부는 예배 전 부모에게 공과 동영상과 출력물을 전송하여 예배 후 있는 공과시간에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하고 있다.

유치1, 2부는 '내가 있는 장소에서 만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 벨렐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실시간 예배 영상 하단의 출력 시트 링크에 예배를 드린 후 느낀

점을 적으면 다음 예배 시작전 준비영상에서 유치부 친구들의 생각과 기도제목을 읽어 볼 수 있다.

유년부는 매주일 암송 말씀을 노트에 적고, 암송 영상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 달란트를 받을 수 있도록 권하고 있다. 예배 후 퀴즈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이 실시간으로 적극 참여토록 하여 현장 예배의 생동감을 전해 주고자 애쓰고 있다.

초등부는 예배 후 친구들과 설교말씀에 관한 빙고게임을 하며 온라인 예배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매주 암구호를 정해 주중에 전도사님의 문자에 답을 하면 달란트를 얻을 수 있다.

소년부, 어린이영어예배, 어와나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전과 동일하게 실시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다.

유년부에 새로 부임한 김형식 전도사는 “어

려운 시기 교사의 영적 무장을 위해 교사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여 아이들을 위해 늘 중보하고 있다. 아이들을 직접 만날 수 없어도 전화 심방과 기도를 통해 교사와 전도사가 늘 주일 학교 아이들을 생각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속히 완화되어 직접 아이들과 만나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임재철 교육국 목사는 “온라인 예배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예배 시간 중에 아이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준비된 자세로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모범을 보여 주시고 바르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린이 여름성경학교가 연기된 기간 동안 교회학교에서 더 내실 있는 준비

를 하고 있으니 여름성경학교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기대감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 했다.

교회학교 Youtube 참여방법은 정규예배 시작 10분전에 유튜브 검색창에 광림교회 부서명을 검색하여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 할 수 있다.

박희윤 기자

교회학교 Youtube 참여방법

▶ Youtube 검색창에 **광림교회 영아부**

영아부 / 유아부 / 유치부 / 유치3부 / 유년부 / 초등부
소년부 / 어린이영어예배부 / 어와나 / 중등부
고등부

광림홈페이지 사용설명서 A To Z 3

본당 파이프로르간의 파이프는 몇 개일까?

매주일 광림교회 본당을 장엄하고 아름다운 음식으로 채우는 파이프로르간은 은혜로운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첫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이끄는 역할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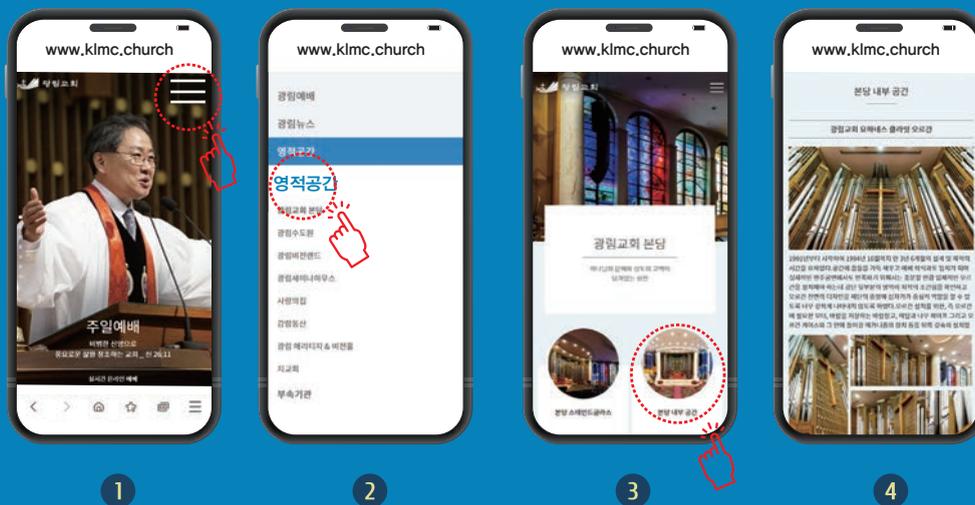
때로는 거룩한 선율로, 때로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울림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돕는다.

본당 파이프로르간의 파이프 수는 몇 개일까? 언제 설치되었을까? 어떤 제작과정으로 파이프 오르간이 설계되었는지 알아보자.

광림교회 홈페이지 영적공간을 방문하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던 파이프로르간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열쇠가 숨어있다.

소현수 기자

영적공간 찾아보기



광림남교회

중고등부 온라인 수련회 '예배자 다윗'



광림남교회 중고등부는 2021년 8월 7일 토요일부터 8월 8일 주일까지 2일간 '예배자 다윗'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장 활영과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중고등부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2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그 첫째로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교

역자와 선생님들이 직접 배송하는 키트 배송의 시간을 가지고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는 실시간 토크형식으로 주제를 '시작'으로 하여 전도사와 선생님들의 신앙에서의 시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만남의 시작, 자신의 전공을 하면서 전공에 대한 시작 등 다양한 양케이트를 가지고 토크

간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당시에 주셨던 찬양을 부르며 아이들과 호흡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실시간이라는 상황이 많은 준비가 필요했지만, 아이들의 반응, 아이들이 선생님의 간증을 통해서 조금 더 신앙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은 수련회 키트를 7월 31일 토요일 공과와 수련회 책자, 티셔츠, 간식 등으로 키트를 구성하였습니다. 키트 제작 이후 배송은 전도사와 교사가 직접 찾아가 배송을 하였는데, 많은 어려움(부재중, 이사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아이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 속을 보면서 이번 수련회가 정말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예배자를 세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한준구 전도사(광림남교회)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 목회현장 -



강명남 목사 (광림남교회)

김용일 목사의 '유익한 제자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습관이 있으셨다. 첫째,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에 교회에 가셨다. 둘째, 항상 기도하셨다. 특별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는 기도를 하셨다. 셋째, 감사로 기적을 이루셨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떡 일곱 개와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자 여자와 어린이와 남자만 5천명, 4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다. 주님이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시자 기적이 일었다. 제자라면 기억하고 실천할 일이다." 이 글을 보면서, COVID19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제자된 모습, 3가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1) 예배를 온전히 사모하고 있는가?
- 4단계로 방역단계가 격상된 이후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속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라인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박차고 일어나 성전으로 향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결코 소홀해서도 형식적이어서도 안됩니다.

2) 이 상황을 반전시킬 것이라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 믿음의 담대한 선포가 담긴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이라 확신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고백하는 기도! 우리가 겪고 있는 시간과 상황은 얼마든지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3)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 상황과 여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생각, 태도가 달라지면 됩니다. COVID19로 인한 불평과 원망에서 감사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COVID19 이전으로 말입니다. 제자된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책임 일 것입니다.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황영재 목사 (광림북교회)

광림서교회

매일 말씀으로 승리해요!



광림서교회는 매달 '이달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매달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소현 청년은 "이달의 말씀을 사무실 모니터에 붙여놨습니다. 일할 때마다 이달의 말씀을 보게 되고, 순간순간 말씀에 힘을 얻으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책갈피로도 쓰기 좋고, 직장 동료 분들에게도 나눠주기 좋아서 매달 전달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불잡을 것 하나 없는 상황 속에서 "두

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성도님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이달의 말씀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아라 전도사 (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봉헌 3주년, 아름답게 성장하는 광림북교회



할렐루야. 광림북교회를 지난 3년 동안 날마다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2018년 8월 9일, 김선도 감독님과 김정석 담임목사님을 모시고, 광림의 많은 성도님들의 축복과 축하 속에 광림북교회가 봉헌되었습니다. 북교회는 광림의 전통을 잘 지키며 계승하고 계시던 기존의 9교구 성도님들이 이동 오시고, 또 새가족들이 전도되고 정착하

면서 빠른 속도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가 함께 어울려져서, 항상 웃음이 넘치고, 기쁨과 활기가 넘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1년 반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중에도 본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한 번도 선 적 없고, 여전히 기도하는 일과 전도에 힘쓰고 있습

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꾸준히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광림의 전통적 예배의 형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진정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는 위기를 돌파하는 힘으로 성도들에게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 전도하는 교회가 주변에 아무 데도 없는데, 여전히 북교회는 전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이지만,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봉헌 3주년을 감사하며, 성도들의 정성을 십시일반 모아 승합차 구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앞으로도 북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황영재 목사 (광림북교회)



김선도 감독의 아흔 인생과 '장천 울림' 목회신학 이야기

11 권병훈 목사(상계광림교회 담임)



<목사 김선도2> '목회의 지도를 그리다'에서 권병훈 목사는 '교회 경영자로서의 김선도 목사'라는 제목으로 "김선도 감독님의 목회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진리가 목사의 인격을 통해서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도 목사의 인격을 통해 전해지지 않으면 그 진리는 공허할 뿐이다"라고 소개했다.

권병훈 목사는 광림교회에서 선교교와 기획목사로 섬기며 김선도 감독님의 목회 방침과 교회 성장에 대해 큰 영향을 받았다.

현재 상계광림교회 담임목사이며, 아래는 권병훈 목사의 글 요약본이다.

김선도 목사가 광림교회를 통하여 이룬 교회의 모습은 복음주의에 입각한 선교 중심의 교회이며 동시에 교회성장을 추구하는 교회이다. 교회성장은 언제나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교회성장을 원하시는가?'를 질문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눅 15:1-7)'를 통하여 '예'라는 대답을 얻었다. 이후에는 '왜 성장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선교와 봉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는 목표를 얻게 되었다.

교회의 운동성과 생명성

교회의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마28:19-20)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김선도 목사는 "교회의 운동성과 생명성"에 주목한다. 생명은 성장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고, 그 본능이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운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이 있는 교회라면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운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교회성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교회성장은 성장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선교와 섬김을 위한 성장이기 때문이라고 정의한다. 오늘날의 광림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도전은 교회를 쌍림동에서 신사동으로 옮긴 것이다. 쌍림동에 있던 광림교회는 구도심의 도시 공동화 현상에 따른 인구 감소와 주차장 부족이라는 현실에 놓였다. 이것이 교회성장에 위기로 작용할 것임을 예견한 김선도 목사는 강남이 개발되면서 강남의 인구가 해마다 40퍼센트씩 성장하는 당시

의 추세를 보고 교회성장의 기회로 삼아 용기를 내어 교회를 이전했다. 어떤 조직에서든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예외가 없다. 지도자의 역할이 돋보이는 때는 평상시보다는 긴급한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늘 반복되는 평상시의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다. 김선도목사가 1971년 광림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회는 500명 좌석에 150여명이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다른 교단의 대형교회가 있었지만 교회내부에는 패배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30분은 성경공부를 하고 30분은 전도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교육과 훈련을 병행할 때 150명 교인은 300명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500명이 되었다. 그리고 1,000명이 될 때 교회 이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

사명을 사역으로

열정과 헌신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교회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조직체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1980년대 광림교회는 지구, 교구, 선교구를 조직했다. 광림교회는 전통적으로 속회에 속장이 자신이 맡은 속회의 인도와 관리의 모든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10개의 속회를 지구로 묶어서 평신도로 지구장을 맡게 하였다. 그리고 10~12개 지구를 묶어서 교구를 세우고 심방 전도사를 두었다. 또한 3개의 교구를 묶어서 선교구를 세우고 부목사로 담당하게 했다. 이것은 매년 전도되는 교인들을 폭발적으로 정착시키는 구조가 되었고

1983년 3개의 선교구에서 시작하여 1986년에는 8개의 선교구로 늘어났고 2020년 현재에는 지성전을 포함해 15개의 선교구로 확장되었다.

김선도 목사는 교구와 선교구를 조직하고 그 업무를 분명하게 설정했다. 그것은 심방을 통한 돌봄과 치유 그리고 전도이다. 1년에 1회 담당 목사가 대심방을 하도록 하는 것은 성도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의 목회실현이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주간회의를 통해서 부목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간회의는 문제점을 보고하는 것을 넘어서 현재 교우들이 처한 환경과 현실에 대해서 진지한 소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다. 교우들의 교구이동 현황을 보면 왜 특정지역에서 이사가 많이 일어나는지를 질문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차량을 새롭게 배치하거나 그 지역에 적합한 전도방법 등을 시행하기도 한다.

1년의 마지막에 진행하는 목회세미나에서 교구와 선교구의 사역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평가한다. 교구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전도와 성장률을 비롯해서 대심방률, 임원의 전지훈련 참석률, 트리니티 성서연구의 참석률과 수료율 등으로 평가하고 시상한다. 교회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관계성과 유기체성인데 한국 감리교회는 개교회 중심주의로 흐르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김선도 목사는 다른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광림교회가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가를 질문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지성전을 세워 개체교회로 분할시키기로 결정하는 것이었다. 이 시도는 신도시가 새롭게 조성되는 곳에 지성전을 세움으로써 처음교회가 세워져서 자리매김을 하기까지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단축하는 전략적 시도였다. 상계, 부천, 하안, 분당, 일산광림교회는 초기 지성전으로 유지되다가 차례로 독립했고 현재 각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했다. 그리고 이후에 세워진 동서,남북 교회는 지성전으로 유지되면서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다.

계속되는 자기개발

김선도 목사에게 있어서 자기개발의 토대는 철저한 시간관리를 통한 독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은퇴한 후에도 새벽기도회에 참석할 때 성경책 외에도 몇 권의 책을 더 가져오는 것을 자주 보았다. 한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새벽기도회 후에 아침식사를 하기 전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책을 읽고 해외에서 발간하는 신학의 동향과



▲상계광림교회

교회 상황들을 전하는 잡지들을 읽으면서 스스로 정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발전에 머무르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부목사들에게 교육했다. 부목사 교육을 할 때마다 아직 번역되지 않은 외국 서적들을 소개하고 그 내용이 교육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설명하곤 했다. 김선도 목사에게 있어서 자기 개발은 '셀프 매니지먼트'(self management)이면서 동시에 인재 개발이 된다. 그리고 교회성장의 지속적인 동력이 된다.

언젠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대답은 눈덩이에 대한 비유였다. "처음에는 조그만 눈덩이지만 눈 위에서 이리저리 굴리면 큰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끌어안고 계속 빙글면 영혼을 올리는 설교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설교의 영역 뿐만 아니라 목회영역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이다. 김선도 목사는 경영자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의 돌을 굴렸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았고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다.

✎ 정리: 신희경 기자



총력전도주일에 성도들과 인사하는 김선도 감독님

